

계엄 선포서 탄핵 가결까지 긴박했던 12일...광주일보 '호외'로 함께하다



“5·18 계엄 트라우마와 분노 속 호외 만든 광주일보 기자들”

日 니시니혼신문 3일 제작 과정 보도
계엄군 들어닥칠 위기감 속 빠른 제작
5·18 아픈 역사도 사진과 함께 실어

“광주일보에는 (계엄)선언 직후 30여 명의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 동시에 전달된 계엄포고령 문구가 긴장을 더하게 했다. ‘모든 보도와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선언 30분 후부터는 온라인에 속보 기사를 내보내면서 동시에 호외제작에 나섰다. 계엄군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출입문을 폐쇄하고 기자들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다.”

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이후의 편집국 상황을 취재한 니시니혼신문이 지난 14일 온라인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 <사진> 이들 신문은 계엄 상황에서 호외를 만들게 된 배경, 제작 과정의 긴장감, 기자들의 각오, 5·18 민주화운동 당시 12일간 발행하지 못했던 광주일보의 아픈 역사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실었다.

간 안에 (호외)지면 제작을 끝내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4일 새벽 1시 1분 계엄해제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새벽 4시 30분 윤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하자 기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새벽까지 온라인으로 기사를 계속 전송했다”고 전했다.

가는 경우가 계속되었다. 광주일보에는 당시 기자들이 사장에게 제출한 사표가 남아있다.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 당시를 기억하는 기자들은 없지만, 최 편집국장은 그 분노와 공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후배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반갑다, 광주일보 호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광주·전남 지역의 중항 일간지인 광주일보가 관련 소식을 전하는 호외를 발행, 배포했다. 이날 동구 금남로를 찾은 학생들이 호외를 보고 있다. /니명주기자mjna@kwangju.co.kr

“尹, 비상계엄 도박으로 몰락 자초...야당에 ‘탄핵 스모킹건’ 제공”

외신들 윤석열 탄핵안 가결 보도
NYT “김 여사 문제로 정치적 곤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다언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을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도 정권에 타격을 줘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청년층이 탄핵 촉구 시위의 주축이 됐다고도 분석했다.
외신은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우정사업본부

착한금융생활

우체국금융

시골에서 낙도까지, 전국 방방곡곡 우체국 전국 네트워크서비스
저축 후 불인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체국 금융서비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집배원이 직접 용돈을 인계드리는 우체국 용돈 배달 서비스